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민경배 교수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인터넷 실명제의 폐단과 대책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둘러싸고 사이버 공간에 또 한 차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정통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기업협회, IT산업노조 등 각계에서 잇달아 반대 성명이 발표되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더니, 급기야 시민단체들이 실명제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얼마 전 YMCA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실명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명제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73%가 우려의 태도를 보였으며 56%의 응답자가 자유로운 정보 교류나 의견 교환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이버 폭력의 방지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정통부의 입장과 그로부터 발생할 개인정보 유출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염두에 둔 시민단체의 반대 논리가 동시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인터넷 실명제는 예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기에 그리 새삼스러운 사안은 아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이 게시판에 난무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잇달아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 공간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익명성으로부터 비롯된 폐해와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기된 것이 다름 아닌 인터넷 실명제이다. 즉 인터넷 이용을 실명으로 한다면 이용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하지만 정말로 익명성이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일까?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의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처방책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들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고민과 검토 없이 지금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실명제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익명성의 위험보다도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부터 인터넷 실명제의 함정과 그것이 빚어낼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자.

1. 실명제는 사이버 폭력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과거 PC통신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시 PC통신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요 신상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해야만 진입이 허용되는 완벽한 실명제의 세계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인터넷 이용자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사람만이 PC통신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문제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골칫거리였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익명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실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던 PC통신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러한 문제들이 실명제를 통해 해결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 해소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미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

는 주요 언론사 게시판에서도 여전히 사이버 폭력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실명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도 사이버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얼마 전 클론의 강원래씨 미니홈피에서 벌어진 일부 네티즌들의 사이버 폭력에서도 보았듯이 실명제는 결코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양승훈 (ysh1225) 찬성 8 반대 0	이 교육망쳐먹은놈애 주말농장으로 샀으면 토.일내려가서 농사져야지!바쁘다고!바빠!노는날마다 콜프대메고 콜프치러다니는놈이 뭐가 바쁘당개! 투기 혈려고 땅샀지!투기군애!!! (09/13 20:38) 신고 삭제
이재기 (dogseul) 찬성 4 반대 0	꼬라지에 하는 말 믿을 수 있나? 당장 총리 자리 잘라봐. 매일 내려가서 포도 농사를 짓나 보게. 농사 짓는 것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마 10분도 팽이질이나 삼질 할까? 입으로야 될 못해. 이런 미치광이를 때문에 국민들만 불쌍하다. (09/13 20:37) 신고 삭제
김영열 (bomulo) 찬성 3 반대 0	스발노움들...말로는 국민을 위한다...어쩐다..개주동이 나불대고는... 뒷구멍으로는 호박씨를 짖구만... (09/13 20:32) 신고 삭제

(조선일보 실명이용자들의 댓글)

No.6092 (2005.07.21 16:41)

ㅋㅋ왜다시복귀했냐--미친놈
그냥애자로살지--
ㅋㅋㅋㅋㅋㅋ

강원래: 미쳤으니깐.....ㅋ (2005.07.21 22:30)

No.6107 (2005.07.21 23:40)

장난하니
니도연예인이냐??
팬클럽죽여 ㅋㅋ

강원래: 저는 강원래입니다.
보마하니 나이 어린 학생같은데...
경고합니다.

경고했는데
계속 이러시면
신고조치합니다. (2005.07.21 23:56)

TODAY 1082 | TOTAL 477296 강원래님의 미니홈피

럼 원래오빠 화이팅~~

No.8582 (2005.08.09 19:21)

미친 xxx 아 xx 짜증나
개 xxxxx 애자플추 다리장애인
척추다 xx된xx xxxxx
제발 티비에 나오지좀마 xxx 아
개 xx xxxxxx xxx xx 마
개 xxxx 장애인 xx 마

강원래: . (2005.08.09 23:23)

(사이월드 강원래 미니홈피의 사이버폭력)

2.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등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초래한다

흔히 인터넷이 익명의 공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알고보면 최소한 한국의 인터넷은 이미 상당 부분 실명화된 공간이다. 인터넷 이용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대형 포털 사이트의 많은 서비스들은 진작부터 실명 확인을 통한 로그인 절차를 밟아야만 이용할 수 있다. 실명 실명 확인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서버에는 이용자의 IP 주소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이용자의 신원을 파악해낼 수 있는 구조이다. 지금의 인터넷은 결코 익명의 바다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실명확인 장치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또 다른 사이버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사건이자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필요성의 근거 사례로 자주 인용되는 개똥녀 사건이나 서울대 도서관 폭행사건 등은 역설적이게도 실명성이 초래한 사태의 심각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언론 등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판 공간에서 익명의 네티즌들에 의해 올려진 욕설 등 사이버 언어폭력의 심각성만 강조해 왔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익명의 욕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스러운 것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 신상명세가 고스란히 공개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사건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정도로 가공할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은 엄밀히 말해 익명의 욕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신상명세가 노출된 공간은 다름아닌 완벽한 실명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였다. 이처럼 실명제는 익명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폭력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장치이다.

지난 2003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약 26%의 네티즌이 인터넷 공간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경험이 있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오늘날 이미 자신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명제란 인터넷의 폐해와 부작용을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악의적인 글들이 마구 올라오는 역효과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프라이버시 정보 침해라는 또 다른 불법행위를 부채질하고, 동시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저지를 불법행위의 누명을 뒤집어쓰는 억울한 피해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 하겠다.

3.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익명성은 힘없는 일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보호막이다. 익명성의 제거는 곧 표현의 자유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특히 정치 관련 이야기는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재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2003년에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이후 네티즌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떳떳하게 이름 걸고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익명의 베일 뒤에 숨어서 말하는가?”라고.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투표나 선거와 같은 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은 익명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역시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렇듯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거나 국민 여론의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동원되는 제도적 과정들은 한결같이 익명의 의견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가장 자유롭고 솔직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란 바로 익명성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오프라인에서는 이렇듯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인터넷에서는 익명의 표현은 비겁하고 악의적인 것이라며 그 폐해만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네티즌을 후안무치하고 부도덕한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이러한 주장야말로 정말로 비겁

하고 악의적인 논리이다. 익명성은 네티즌들에게 자유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강제적인 실명제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고, 결국 인터넷 공간은 물론이요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4. 강제적 실명제는 시대착오적인 통제주의이다

사실 인터넷의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익명이 더 좋은가 실명이 더 좋은가” 하는 단순한 양자 택일의 문제에 놓여 있지 않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것이 곧 익명성만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는 한다. 그러나 지금 시민단체나 IT 관련 업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실명 운영’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로서 규제하고자 하는 ‘강제적인 실명제’이다. 익명성과 실명성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절대 선, 혹은 절대 악으로 간주할 일은 결코 아니다.

보다 궁극적인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에 이토록 많은 걸림돌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추진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자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명제를 법적 장치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제하려는 시도 역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익명이나 실명이나는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이지 굳이 법조항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강제할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했거나 혹은 익명게시판과 실명게시판을 나누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 즉 게시판 공간에서 익명성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실명제로 운영할 것인가는 지금처럼 게시판 운영자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이용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주로 글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실명 게시판에 주로 글을 올릴 것인가 역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각자의 자유 의지에 충실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자유 의지 또한 존중해주면 그뿐이다. 그게 바로 인터넷의 문화이다. 이러한 자율적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채 모든 인터넷 공간을 실명제라는 획일적인 제도로 강제화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반대해야 할 가장 위험스러운 대상임에 틀림없다.